

● 회원사 및 유관기관동정

현대정공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리화 기술」 개발 착수

현대정공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25분의 1로 줄여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리화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현대정공 朴正仁 사장은 12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유리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한국전력 및 프랑스 SGN社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본사 처(실)장>

- | | | | |
|-------------|------------|-------------|----------------|
| ▶경영활성화팀 최봉상 | ▶전원계획처 김영창 | ▶인력관리처 성기택 | ▶전력산업구조조정실 정경남 |
| ▶송배전자재처 김광재 | ▶발전자재처 이희택 | ▶기술품질처 서증석 | ▶정보시스템처 송인호 |
| ▶영업처 송정욱 | ▶배전처 임정재 | ▶계통운용처 김창무 | ▶송변전처 왕통근 |
| ▶구화력건설처 김영량 | ▶환경입지처 문명국 | ▶원자력발전처 홍장희 | ▶연료구매제도개혁팀 장세문 |

<본부장>

<인사이드>

- | | | | |
|------------|------------|------------|-----------|
| ▶고리원자력 김종신 | ▶월성원자력 구한모 | ▶삼천포화력 이영철 | ▶태안화력 김익규 |
| ▶하동화력 이인복 | | | |

<발전소장 및 건설소장>

- | | |
|-------------------|---------------------------|
| ▶영광원자력본부 제2발전 민석관 | ▶ " 건설 이종호 |
| ▶월성원자력본부 제2발전 김찬용 | ▶ " 건설 이천언 |
| ▶울진원자력본부 제1발전 정대헌 | ▶ " 제1건설 최종소 ▶ " 제2건설 김정차 |
| ▶삼천포화력본부 제2발전 최원필 | ▶보령화력본부 제1발전 정덕환 |
| ▶태안화력본부 건설 윤의수 | |

<특수사업소장>

- | | | | |
|----------------------|-------------------------|---------------------|-------------|
| ▶업무지원처 황호윤 | ▶중앙전자통신처 안병선 | ▶발전교육원 노승훈 | ▶원자력교육원 이강준 |
| ▶신포원자력건설본부 손동희 | ▶사옥건설처 이형배 | ▶전력연구원 전력계통연구실장 김정부 | |
| ▶ 전력연구원 발전연구실장 지평삼 | ▶ 전력연구원 원자력연구실장 윤맹현 | ▶전력연구원 연구관리실장 변용섭 | |
| ▶ 전력연구원 전력경영연구소장 박대웅 | ▶ 전력연구원 정비기획팀 수석전문원 최낙균 | | |

● 회원사 및 유관기관동정

한국전력공사, 원자력 환경기술원

'99년도 RI폐기물 위탁 인도물량에 대한 조사

RI폐기물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하여 발생기관이 다음연도 폐기물 인도계획을 11월 30일까지 원자력환경기술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많은 기관이 인도물량을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내년도 위탁폐기물량을 조사하고 있음

※ 문의사항 (02-566-1092 담당:박태진)

기초과학지원연구소

- 핵융합 특수실험동을 건설

대덕 기초과학지원연구소는 연구소 부지내에 핵융합 특수실험동을 건설하기로 하고 12월 23일 기공식을 갖는다. 6860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오는 2000년말까지 건설된 이 핵융합특수 실험동은 전기동으로 구성돼 있다. 건설비용으로는 정부예산 6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핵융합특수실험동 건설은 국내 핵융합연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림은 물론 첨단 극한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공식에는 송옥환 과학기술부 차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 1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부

- 각종규제 폐지 또는 개선

과학기술부는 11월 26일 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제 4백26건중 63.4%인 2백70건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행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취지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위해 그 동안 각종 관련 규제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2백16건을 폐지하고 54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엔 폐지, 개선되는 2백70건 중 2백46건이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것들이다. 柳熙烈 과기부 기획관리실장은 "원자력안전성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를 대폭 정비했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그대로 유지되는 규제 1백56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속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원전관련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 핵연료주기시설, 폐기시설,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등에 대한 허가절차 중 설계, 공사방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별도 승인 절차 폐지.

● 회원사 및 유관기관동정

- ▲ 원전 부품생산업 등 하도급업체 직접 규제폐지 = 원자로 및 관계시설 주요 부품의 생산업 허가, 성능검증업 허가 등 원전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관한 정부의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원전사업자에게 안전관리책임을 집중. 원전내의 방사능오염제거,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운반등의 하청용역인 역무제공업 등록제도 폐지.
- ▲ 핵물질 정련사업, 변환사업, 가공사업 관련규정의 정비 = 동일 사업자가 동일공장에서 운영하는 핵물질가공사업과 변환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개별 적인 별도 허가절차를 폐지.
- ▲ 사업자의 안전관련보고, 면허및 교육훈련에 관한 의무사항 개선 = 원전운영자의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간소화하고 원자력관계 면허제도와 성격상 중복되는 원자력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 의무를 폐지. 원자력관계시설의 해체후 해체완료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등.
- ▲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조사및 환경보전 개선 = 종전 분기별로 제출해오던 환경영향평가서를 일년에 한번 제출토록 변경.
- ▲ 방사선피폭 선량 판독및 피폭관리 내실화 = 판독에 대한 승인 또는 허가제도를 등록제도로 완화. 판독취급 책임자 제도폐지를 통해 사업자의 책임 일원화.
- ▲ 엔지니어링 진흥관련 경쟁제한요소 개선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의무출자폐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의무가입폐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신고제도
- ▲ 대덕연구단지, 사립과학관 관련규정정비 = 대덕연구단지 내 교육연구시설 보호구역안에서 경매등에 의한 부지 취득신고제도와 부지건축물등의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승인제도, 입주 기관 지도의 폐지. 사립과학관의 법정개방일수 단축 또는 휴관시 승인 및 신고제도폐지.

- '99년도 예산 확정

12월 14일 내년도 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28% 증가한 1조6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보다 10억7천8백만원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과기부 예산을 내용별로 보면 특정연구개발사업비를 비롯한 연구개발비와 출연 기관 육성 및 지원 등 일반회계가 9천6백18억2천7백만원, 과학기술진흥조성기금 등 재정용자특별회계가 50% 증가한 4백50억원 등이다. 특히 과학기술 예산 중 특정연구개발사업비, 기초과학연구사업비,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및 정책연구비 등 순수 연구비의 경우 올해보다 14.6% 증가한 5천4백77억원으로 나타난 반면 출연연구소 육성 지원사업비는 인건비·운영비 등을 중심으로 올해대비 15.0% 삭감된 3천7백68억원에 그쳤다.

과기부는 내년도 예산의 특징으로 출연연구소 육성 및 지원예산은 대폭 줄인 반면 순수연구비는 대폭 늘려 경쟁체제에 의한 연구비 배분방식을 실질적으로 더욱 강화했다.